EASTERN ECONOMIC FORUM

주간 정보 다이제스트: 극동 경제 발전

№3 27.06.2016

동방경제포럼 뉴스

2016년 6월 27일, www.ria.ru

러중 동방경제포럼서 대규모 계약 2건 체결 예정

트루트네프 대통령 전권대표는 동방경제포럼에서 극동지역 대규모 프로젝트 관련 최소 2건의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권대표는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양국에 해당 프로젝트들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http://ria.ru/economy/20160626/1452114839.html#ixzz4Cls1PVWc

2016년 6월 23일, www.minvostokrazvitia.ru

동방경제포럼서 인터랙티브 어업수역 지도 공개 및 첫 입찰 진행 예정

극동개발부와 대검찰청 공동 위원회 회의에서 양식업 관련 사안들이 논의되었다. 동해의 러시아 연안 및 오호츠크해 남단 2백만 헥타르 이상의 수역이 양식업에 적합하지만 현재 활용중인 면적은 2만 헥타르 이하이다.

극동 및 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 정부위원회 소속 극동 어업단지 개발 분과위원회 제 1차 회의 결과 (2016년 5월 27일) 어업 수역 경계 형성에 대한 접근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어업 수역은 과학연구결과를 토대로 경계가 결정되어 인터랙티브 지도에 표시가 되고 공개입찰을 통해 제공되게 된다. 첫 입찰은 제 2회 동방경제포럼에서 있을 예정이다. 또한 포럼에서 극동의 인터랙티브 어업수역 지도가 공개될 예정이다. http://minvostokrazvitia.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4388

2016년 6월 22일, www.forumvostok.ru

아시아 에너지 슈퍼고리 구축 프로젝트 동방경제포럼서 논의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장관,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그룹 이사회 의장, 마에다 타다시 일본 국제협력은행(JIBC) 수석전무이사는 러시아-일본-한국-중국을 연결하는 통합 에너지시스템 구축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각측은 프로젝트를 구체화 하여 동방경제포럼에서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http://forumvostok.ru/proekt-sozdaniya-aziatskogo-energeticheskogo-superkoltsa-obsudyat-na-vef/

2016년 6월 22일, www.forumvostok.ru

극동 투자자들을 위한 신규 플랫폼 «보스호드» 동방경제포럼에서 런칭

극동개발기금과 RTS 개발 비영리 연합은 «보스호드» 증권거래시스템 공동구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새 증권거래시스템은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상품을 제공한다. 1단계에서는 극동 주식 및 채권 거래가 가능하고, 향후 투자자들에게 최대한 많은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상품 목록을 확장할 예정이다. http://forumvostok.ru/novuyu-platformu-dlya-investorov-na-dalnem-vostoke-voshod-zapustyat-k-vefu/

2016년 6월 22일, www.forumvostok.ru

극동개발부 장관, 인도 사업계를 동방경제포럼으로 초청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장관은 주러 인도대사 판카지 사란과 면담을 가지고 극동지역의 양국간 협력을 논의하였다. 인도 대사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최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대사는 양국간 경제협력의 심화가 이어져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http://forumvostok.ru/glava-minvostokrazvitiya-priglasil-indijskij-biznes-na-vef/

극동 국가정책

2016년 6월25일, www.ria.ru

러중 수십건의 협력계약 체결

러연방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중국 공식 방문을 통해 중국 시진핑 주석과 지도부 인사들을 만났다. 면담에서 주된 초점은 관례에 따라 경제협력강화, 특히 에너지 분야로 향했다. 양측은 중국과 유라시아 경제연합 간 자유무역구역 조성과 모스크바-카잔 고속철도 프로젝트 중국 참여를 논의하였다.

협상결과 우주, 에너지분야 부터 관광, 대중 곡물 수출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친 양국간 상당한 수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http://ria.ru/world/20160625/1451799581.html

2016년 6월 23일, www.kommersant.ru

러일,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조약으로 한걸음 다가가

러일 양국 정상 블라디미르 푸틴과 아베 신조와의 소치 회담 이후 도쿄에서 러일 평화조약 체결 관련 1차 협상이 있었다. «이번 협상은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라고 타케히토 하라다 대러 일본특별대표가 러시아 이고르 모르굴로프 외무부 차관과의 면담 결과를 정리하였다. 타케히토 하라다는 양측 협의에 따라 협상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 러시아와 중국간 영토분쟁을 해결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도 외부에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가 불시에 신속하게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라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다.

한편, 이고르 모르굴로프 차관은 다음 평화협정 관련 회담을 아베 신조 총리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 방문 이전에 조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kommersant.ru/doc/3019563

2016년 6월 23일, 인터팍스

극동 모든 주요 항구에 자유항 체제 도입 예정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장관은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적용된 자유항 제도가 극동 지역의 5개 도시구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원 의회가 2차 독회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체제를 연해주 라좁스키 군, 하바롭스크 주 바닌스키 군, 캄차가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도시구, 사할린 코르사콥스키 군, 축치 자치구 페벡 도시구에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하였습니다.»라고 장관이 밝혔다.

해당 지역들은 이미 운영중인 항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유항 체제를 통해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얻게된다. 최종 3차 독회 및 상원의회 검토를 위한 제출은 6월 24일로 계획되어있다.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news.asp?id=738068&sec=1671

2016년 6월22일, 인터팍스

유리 트루트녜프: 어선 건조 첫 물량에 대한 리스크는 국가 부담 필요

«첫 선박 물량 생산에 대한 리스크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며 투자자들에게 부과해서는 안됩니다. 간접지출, 생산시설비용 등 지출 내역을 부담해야 합니다.»라고 유리 트루트녜프 대통령 전권대표가 밝혔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은 순수 선박 가격만 부담하게 되어 한국, 중국, 미국산과 비교해서 더 높지 않을» 것이다. «나머지 필요한 비용은 산업무역부의 정책자금, 저금리대출 등 재정도구를 활용해 충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투자자들의 관심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유리 트루트녜프가 밝혔다.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main.asp?id=737573

2016년 6월17일, 타스통신

러정부, 7월경 극동연방관구 프로젝트들의 인프라 조성을 위해 200억 루블 지원

극동지역의 6개 프로젝트가 인프라 개발을 위해 국가지원금 200억 루블을 지원 받을수 있게 되었다. 투자자들 위한 재정지원에 대한 결정은 7월경 내려질 예정이라고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장관이 밝혔다.

«현재 6개의 프로젝트이며 (투자 규모 1800억 루블 이상) 재정지원 규모는 200억 루블까지 입니다. 6월 말 분과위원회 회의로 최종결정을 내릴것입니다.»라고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장관이 밝혔다. 국가지원을 신청한 프로젝트들은 자원가공 및 물류 분야 프로젝트들이다. http://tass.ru/pmef-2016/article/3377088

극동경제

2016년 6월 23일, www.ria.ru

7월 1일부터 극동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혜택 제공

7월 1일부터 극동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법령이 발효된다. 천연자원채굴세에 대한 혜택이 제공되는 것이다. 소득세 혜택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 법인 소득세 및 천연자원채굴세 혜택은 10년간 주어진다. 2013년 1월 1일 이후로 투자된 투자금부터도 계산에 적용된다. http://ria.ru/economy/20160623/1449793109.html

2016년 6월20일, «구독»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기업들 나호드카 경제에 40억 루블 이상 투자

10개의 기업들이 (주)극동개발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입주기업들은 5년간 신규산업 조성 및 현존산업 근대화에 42억 3000만 루블을 투자하고 488개의 일자리를 조성한다. 입주기업 자격을 부여받은 기업들은 우선 교통, 물류 분야를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예를들어 «카스카드»사는 실내창고를 포함한 컨테이너 부두를 건설할 예정이다. 초기 투자액은 1천만 루블이다. 현재 공사장 준비작업이 진행중이고 장비납품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다. http://www.gudok.ru/news/infrastructure/?ID=1340892

2016년 6월18일, 타스통신

극동에 25개 경제분야에서 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될 전망

극동 인적자원개발기관 사장 발렌틴 티마코프는 «조선업, 양식업, 농업, 서비스업, 관광업, 석유화학 등 25개 분야에서 총 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12개의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투자프로젝트 등 실질적으로 새로운 경제구조가 형성되는 단계이며 올해에 이미 극동에 6천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올해 16개의 신규 산업체가 형성되고 내년에는 41개가 추가되어 2만개 이상의 일자리에 해당합니다.» 티마코프 사장에 의하면 올해 최초로 극동으로부터의 인구유출이 중단되었다. http://tass.ru/pmef-2016/article/3379909

극동개발 신규 정책: **성공사례**

2016년 6월23일, www.rueconomics.ru

새 다리를 통해 블라고베센스크로 중국 관광객 대규모 유입 전망

블라고베센스크와 헤이허 사이 아무르 강을 건너는 다리와 케이블카 건설 및 « 골든마일» 휴양관광구역 조성으로 아무르주를 찾는 중국 관광객들의 수가 연간 7만명에서 1백만명으로 증가할것이라고 아무르주 대외경제, 관광 및 사업부 장관 이고르 고레보이가 발혔다.

고레보이 장관에 의하면 연방 및 지방정부는 국경지역 인프라 근대화에 집중하여 관광객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통관시설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http://rueconomics.ru/180774-po-novomu-mostu-v-blagoveshchensk-hlynut-potoki-kitaiskih-turistov

2016년 6월 22일, www.ria.ru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투자자들과 2건의 추가 계약

극동개발사는 «폴리머 콤플렉스», «보스톡프롬스나스트»와 총 4200만 루블 이상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폴리머 콤플렉스는» 포장을 생산하는 회사로 한국에서 고가의 장비를 관세혜택을 받고 들여올 예정이다.

«보스톡프롬스나스트»는 어업용 도구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폐기물을 최소화한 그물 생산을 조성한다. 원자재는 러시아 국산을 사용할 계획이다. http://ria.ru/economy/20160622/1449588618.html#ixzz4CUtH8Zwl

2016년 6월 20일, www.eastrussia.ru

하바롭스크 선도개발구역 첫 산업체 중 바잘트 섬유 단열재 생산공장 가동

«현재 공장에서 시운전이 진행중이며 몇가지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면 8월에 공식적으로 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장이 하바롭스크 선도개발구역 라키트노예 구역에서 제일 먼저 가동되는 공장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세르게이 콜레스니코프 사장이 밝혔다.

프로젝트에 투자된 금액은 18억6000만 루블로 동일한 구역에 2020년까지 9억6800만 루블을 투자해 스티로폼 생산공장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2019년에 착공하여 2년안에 완공이 되면 연간 30만 입방미터의 단열재를 생산하게 된다. 첫번째 프로젝트의 투자금 상환기한은 8년이며 두번째 프로젝트는 9년이다. http://www.eastrussia.ru/news/zavod-po-proizvodstvu-teploizolyatsii-iz-bazaltovoy-vaty-zarabotaet-v-tor-khabarovsk-odnim-iz-pervykh/

2016년 6월20일, www.dv.land.ru

캄차카에 국제요트항구 착공

«건설 제 1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업무계획은 항구 사무동 복원, 요트 및 보트 보관을 위한 정박시설이 포함됩니다.»라고 캄차카지방개발사 대변인 블라디미르 슬라부카가 밝혔다.

현재 캄차카지방개발사는 국제요트항구 형태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 및 제안할 전문가를 찾고있다. 프로젝트에 150척이 정박할 수 있는 요트 및 보트 선착장, 보관 및 정비시설, 관광사 및 기념품 판매를 위한 상업구역, 전시센터 및 박물관, 관광객들과 주민들을 위한 산책로 등이 포함된다. 레스토랑 및 호텔 건설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캄차카 선도개발구역 발전의 일환으로 요트 항구 인근에 여객선이 정박할 부두도 생길 전망이다. http://dv.land/news/7295